博士學位論文

沈金鰲의 『婦科玉尺』에 대한 硏究*

吳恩永 · 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敎室

關于沈金鰲『婦科玉尺』的硏究

吳恩永·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敎室

『婦科玉尺』是沈金鰲一生的著書中的第二部著作, 是一部對後世影較大的婦産科著著. 該書精確引用併總結了從『素問』、『脈經』等醫經到萬全、武之望等明淸時的婦科學專著, 約40餘家的有關論述, 概括了婦科了經帶胎産育雜病等各種疾病, 具有很高的臨床實用价值.

沈金鰲認爲七情是婦科病的主要病因, 主張憂、思、鬱、怒使婦女的陰凝之氣无法發散, 損傷了具有主血作用的心肝兩臟, 從而引發了諸多疾患. 主張經閉的病因不僅僅是血凝, 所以論治要全面, 血瘀、氣滯、血枯的原因各不相同, 而且其治療方法也分爲活血、理氣、養陰等. 因脾胃受損而引起的濕以謂理脾爲主, 若氣血充足月經必然會調暢. 産後的調治, 首先應以大補氣血爲主, 但是患有疾病時應該辨別血虛、氣虛、血悶、血脫等証候, 而進行補血、補氣、行瘀, 主張盡管有氣血虛脫之証, 但若留有瘀血時應攻補兼施. 繼承了張景岳的理論. 沈金鰲把崩漏的原因分爲火熱、虛汗、勞傷、氣陷、血瘀、虛弱等六种, 主要繼承了很多東垣理論, 六种原因也可成爲其他症狀的引發因素, 還可重叉成爲病因, 在治療大法上强調利用方廣的塞流、澄源、復舊等三法, 認爲療效一定會顯著.

綜上所述, 『婦科玉尺』是一部集歷代醫家理論及沈金鰲自身的臨床經驗之大成的婦科學綜合專著, 概括并總結了先人的醫論, 對后世醫家具有很高的參考价值.

關鍵詞 : 沈金鰲, 『婦科玉尺』, 七情, 大補氣血, 攻補兼施.

Ⅰ. 緖 論

韓醫學에 있어서 婦科는 중요한 構成部分을 차지하며 歷史가 悠久하다. 『史記·扁鵲倉公列傳』의 記載에 의하면, "扁鵲名聞天下 過邯鄲 聞貴婦人 卽爲帶下醫"라 하였고, 현재 가장 오래된 醫學書籍인 『黃帝內經』에는 婦女의 月經의 生理·病理 및 姙娠의 診斷·用藥原則 등이 고루 비교적 상세

* 본 논문은 17권 1호에 실린 박사학위논문의 연속 부분입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히 논술되어 있으며, 漢·張仲景의 『金匱要略』에는 3篇의 전문적인 婦科疾病을 논술한 부분이 있다. 晉·王叔和의 『脈經』은 "居經", "避年"[1]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南齊·褚澄의 『褚氏遺書』에는 "求嗣"의 專論을 만들었고, 北齊·徐之才의 『逐月養胎法』에는 胎兒의 月別 發育에 대한 論述이 仔詳하며, 隋代의 巢元方의 『諸病源候論』에는 8卷에 婦産科 疾病의 病因病機와 證候를 論述하였으며, 唐의 孫思邈의 著書인 『千金要方』은 특히 婦科를 重히 여겨서 卷首에 놓았다. 이후에 『經效産寶』, 『婦人大全良方』 등의 婦産科 專著가 한 시대에 이어서 나와서, 婦産科學의 새로운 局面을 열게 되었다. 『全國圖書聯目』의 統計에 따르면 1949년까지 中國의 婦産科 專門著作은 200여종에 이르며, 婦産科내용의 綜合性醫書 및 方書·類書·醫案 등이 또한 200여종에 이른다[2].

이와 같이 婦科는 韓醫學에 있어서 重要한 부분을 이루며, 時代別로 많은 發展을 이루어왔다. 淸代에는 婦人科라 하지 않고 婦産科라고 하였는데, 이 시대의 婦産科에 있어서 중요한 發展은 풍부한 臨症經驗의 累積을 바탕으로 여러 종류의 우수한 婦産科 著作이 나왔다는 점이다. 淸代의 종합적인 婦産科 著作으로는 醫宗金鑑의 일부인 『婦科心法要訣』과 傅山의 女科臨症經驗을 集成한 『傅靑主女科』, 蕭塤의 『女科經綸』 8권, 吳立本의 『女科切要』 8권, 沈金鰲의 『婦科玉尺』 6권 등이 있으며, 그 외에 浙江蕭山縣의 竹林寺스님들이 撰寫한 『竹林寺女科』와 婦産科의 실제 臨床病症에 대해 주로 논술한 唐千頃의 『大生要旨』 5권, 閻純璽의 『胎産心法』 3권, 汪喆의 『産科心法』 2권과, 孕産期의 保健을 중시한 亟齋居士의 『達生篇』 1권, 張曜孫의 『産孕集』 2권 등이 있다[3].

1) 居經 : 月經이 3개월에 一行하는 것.
避年 : 1年에 一行하는 것 (宋炳基, 韓方婦人科學, 杏林出版, 서울, 1978, p. 44.)
2) 張奇文, 婦科基礎理論,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 1.
3) 李經緯·林昭庚, 中國醫學通史(古代卷),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9, p. 609.

『婦科玉尺』은 沈金鰲의 의학서적인 沈氏尊生書 七種書중에서 두 번째로 완성된 책으로, 후세에 비교적 영향을 끼친 婦産科 서적이다. 총 六卷으로, 求嗣·月經·胎前·臨産·産後·帶下·崩漏·婦女雜病의 九篇으로 나뉜다. 每篇에는 먼저 槪括하여, 각각의 門에 속하는 證候槪要를 서술하고, 그 다음 脈法을 배열하였고, 다시 그 門에 대해 主要病症을 들었고, 前人의 理論과 治法을 기록하고 논술하였는데, 혹은 仔細하고 혹은 簡略하여 適用하기에 적당하였다. 뒤에 前論에 쓰인 方劑를 모아 기록하여 證候에 따라 臨床에서 쓰기에 편하게 하였다. 그 중에서 또한 脈診을 중시하여 每 篇의 뒤에 脈法 1項을 놓아서 『內經』, 『難經』, 『脈經』 등의 各家의 脈論을 고루 모아서 婦産科 諸疾의 脈象을 서술하는데 重點을 두었다[4]. 胎前門을 예로 들면, 脈法, 惡阻, 胎動不安, 胎漏, 妊娠傷寒, 孕癰, 産前白帶, 豫防難産, 雙胎品胎鬼胎, 胎前不治症, 逐月養胎方, 受胎保護諸項을 나누어 놓았고 按語를 덧붙였다. 맨 뒤에 本文에서 쓴 方劑를 모아서 收錄하였고, 각 處方에 主治와 藥物, 劑量, 加減 및 服用方法 등을 기술하였다.

沈金鰲는 博學多識하여 책 중에서 歷代의 典籍과 名家의 論述을 널리 引用하였는데, 살펴보면 引用書目이 『素問』, 『脈經』, 張仲景·徐之才·孫思邈·陳自明·郭稽中·劉完素·李杲·朱震亨·張從正·薛己·王肯堂·武之望·萬全·張介賓·吳謙·亟齋居士 등으로, 약 40家의 有關論述을 引用하여 精密하게 取捨選擇하여 한 가지에만 집착하지 않았다[5].

本書는 取材가 광범하고 體系가 完備되고 嚴格하며 內容의 引用이 適切하고 論述이 均衡이 있어서 가히 따를 만 하며, 수록된 病種도 거의 婦科의 經·帶·胎·産·嗣育·雜病의 각 종류의 疾病을 總括하여 臨症에 參考하여 쓰기에 충분하다. "求嗣"에는 男婦의 不育과 不孕을 兼하여 論하였는

4) 牛兵占, 中醫婦科名著集成, 華夏出版社, 北京, 1997, p. 782.
5) 沈金鰲, 張慧芳等, 婦科玉尺(中醫古籍名著叢書),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6, p. 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데, 仔詳하게 갖추어 논술하여 婦科諸書의 不足한 점을 보충하였다. 이와 같이 傳來의 婦科書籍을 총괄하여 精華를 收錄·提示하였고, 거기에 자신의 獨創的인 의견을 加味한 것이다.

沈金鰲는 『婦科玉尺·自序』에서 "자라는 것은 尺寸을 나누는 것이고 長短을 헤아리는 것이니, 그 基準을 取하는 것이다. 分寸을 나누되, 堅固하여 오래도록 써도 닳지 않으니 특히 基準 중의 基準이 된다."[6]고 한 것처럼, 古人의 議論을 取捨選擇함에 정밀하고 타당한 것만을 골라서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 『婦科玉尺』은 沈氏 자신의 獨創的인 發明이라고 할 만 한 것은 없으나, 歷代醫家의 理論을 取捨選擇함이 그 題目에 걸맞을 만큼 세심하고 정밀하여 臨床에 活用하는데 가치가 있다. 또, 明淸代의 婦人科 專著로 萬全의 『萬氏婦人科』, 王肯堂의 『女科證治準繩』, 武之望의 『濟陰綱目』, 蕭塤의 『女科經綸』, 傅山의 『傅靑主女科』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婦科玉尺』이 淸代의 婦人科 綜合書籍 중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어서, 以前까지의 婦人科學의 成果를 總括的으로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므로, 이에 저자는 本書의 內容과 學術成果를 硏究·考察해 보기로 하겠다.

Ⅱ. 本 論

1. 求嗣

男子는 養精, 女子는 養血을 강조한 외에 進火, 擇鼎 등의 性醫學의 範疇와 같은 부분도 상세히 다루었다.

求嗣의 技術은 男子는 養精, 女子는 養血 이외에 없다고 하여, 男子의 養精之法에 대해 袁了凡의 말을 引用하여 寡慾, 節勞, 息怒, 戒酒, 愼味의 다섯 가지의 禁忌를 제시하였고, 女子의 養血之法은 調經이 가장 중요하므로 經脈門에서 仔詳히 밝혀놓았다.

淸의 曹禾가 『醫學讀書志』에서 本書를 批評하여 말하기를 "論求嗣 備述擇鼎進火", "幷描摹情狀大能導淫"이라 하였다. 책 중의 부분적인 내용이 性醫學의 範疇에 속한다고 여겨지는데, 가령 『漢書·藝文志』에 실린 "房中"의 종류가 中醫學의 구성부분이며, 또한 中古 이후의 醫學書籍 중에 이를 다룬 책이 거의 없으니, 주의를 기울여 본다면 醫家에 참고가 될 것이라[7]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批評은 求嗣門에서 沈金鰲 本人의 論說과 脈法의 뒤에 나오는 進火有法, 擇鼎有訣, 男女情興 등의 부분이 現代의 性醫學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進火有法에서는 孫思邈과 萬全의 글을 인용하였고, 擇鼎有訣과 男女情興에서도 萬全의 글을 인용한 것인데, 이는 그 당시에 一般的인 醫書들이 잘 다루지 않았던 부분으로, 실제적인 活用을 重視한 沈金鰲의 시각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進火有法에서는 男女의 交媾가 적절치 않으면 여자는 五傷-傷肺·傷心·傷目·傷腎·傷腹-이 되어서 經不調가 되거나 다른 질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生子하기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擇鼎有訣에서는 萬全의 『廣嗣紀要』를 인용하여 女性의 外陰器가 先天的인 缺陷으로 인해 交合할 수 없는 경우를 들었다. 螺(현대의학의 骨盤狹窄), 文(陰道橫隔 혹은 陰道閉鎖), 鼓(處女膜閉鎖), 角(兩性奇形), 脈(原發性閉經)이다. 이 다섯 가지는 胎孕이 불가능하므로, 가려야 한다고 하였다. 본래 이 內容은 萬全이 『金丹節要』라는 方書에서 인용한 것이다[8].

男女情興에서는 生子의 道는 男女의 情이 動하여 서로 간에 交感이 있은 후에 行하여야 精血이

6) 田思勝, 沈金鰲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 977.
尺者는 劃尺寸하고 量長短하니 取其準也라 尺而以玉爲之하야 分寸所劃이 堅久不磨하니 尤準之準也라.

7) 沈金鰲, 張慧芳等, 婦科玉尺(中醫古籍名著叢書),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6. p. 4.

8) 傅沛藩等, 廣嗣紀要(萬密齋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 301.
李經緯·林昭庚, 中國醫學通史(古代卷),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9. p. 51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合應하여 有子하게 되는 것이며, 한 쪽만 情이 動하게 되면 孤陽·寡陰이므로 生育할 수 없다고 하였다.

氤氳有時에서는 『濟陰綱目·求子門』에 나오는 袁了凡의 말을 인용하였는데, 古人은 婦女의 每回의 月經 사이에 "氤氳之時"라는 孕胎하기 좋은 時期가 있다고 여겼는데, 이는 대체적으로 현대의 학에서 말하는 排卵期에 相應하는 것이다[9]. 沈金鰲는 여기서 말한 "氤氳之時"라는 것이 또한 우연일 뿐이며, 月經이 끝난 뒤에 受胎期를 따지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여서, 月經을 기준으로 排卵日을 따지는 現代醫學에 근접한 시각을 가졌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기술하지 않았다.

胎孕所由에서는 孫思邈이 南齊의 褚澄의 글을 인용한 것을 실었는데 "男女의 交合에 있어서 二情이 번갈아 펴져서 陰血이 먼저 이르고 陽精이 나중에 부딪힌다."[10]고 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한 먼저와 나중은 단지 한 때를 가지고 分辨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 東垣·丹溪 등의 醫家가 胎가 左에 屬하면 男兒이고 右에 屬하면 女兒라고 한 說은 옳지 않으며, 褚氏의 男女成形의 說이 가장 정확하다고 하였다. 또, 萬全이 "婦人이 月經이 끝나고 나서 이 시기에 子宮이 바로 열리면 곧 受精하여 胎가 이루어지는 徵候이니, 妙合太和의 때이므로, 이 좋은 때를 지나면 子宮이 막혀서 受胎하지 못한다. …… 만약 月經이 마침 끝났으면 첫째·셋째·다섯째날에 交合하면 男兒를 이루고, 둘째·넷째·여섯째날에 交合한 자는 女兒를 이루며, 이 날짜를 지나면 孕胎하지 못한다."[11]고 하였는데, 여기서 時期를 지나면 子宮이 막혀서 受胎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子宮이 막히는 것이 아니고 자궁의 氣가 막힘이라고 하여, 可姙期와 부인의 生理에 대한 합리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다.

秦桂丸[12]辨은 朱震亨의 『格致餘論』에서 引用한 것인데, 그 朱震亨이 활동하던 당시에 『和劑局方』에서 燥熱溫補하는 藥劑를 多用하여 陰血을 耗損시킴으로 인해 攝精하지 못하여 生子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禍가 수없이 많음을 기술하였다.

無子之由에서는 陳士鐸의 글을 인용하여 男子가 生子하지 못하는 原因 여섯 가지와 女子가 生子하지 못하는 原因 열 가지를 제시하였다.

2. 月經

月經病의 原因과 辨證에 따른 治療를 자세히 記述하였고, 診脈과 診斷法, 月水不調, 月閉, 經血暴下, 來止腹痛, 血色痛壞, 熱入血室에 대한 各家의 論述과 辨證施治를 자세히 열거하였다.

沈金鰲는 앞부분에 月經病에 대한 자신의 論述에서 月經은 그 期日에 맞게 오는 것이 가장 重要하다고 하였다. 그는 또 室女가 憂思積傷하여 經閉하고 怒怯하는 자가 있으며, 또 脾胃가 損傷되어 經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經閉를 모두 血凝經閉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는 血凝의 症狀을 經閉, 氣滯, 血枯의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月經時에 生冷物이나 신 음식을 먹어서 血이 凝滯되어 흐르지 못하면 辛溫活血行氣

9) 張奇文, 婦科基礎理論,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p. 52~53.
袁了凡이 云: 天地生物이 必有氤氳之時하고 萬物化生이 必有樂育之時라. 猫犬至微라도 將受孕也에 其雌必狂呼而奔跳하야 以氤氳樂育之氣로 觸之而不能自止耳라. 此天地之節候의 生化之眞機也라.

10) 田思勝, 沈金鰲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 983.
男女之合 二情交暢 陰血先至 陽精後衝.

11) 田思勝, 沈金鰲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 983.
又曰: 婦人血經方絶에 金水才生하나니 此時子宮正開하니 乃受精結胎之候오 妙合太和之時라. 過此佳期면 則子宮閉而不受胎矣라. 男女之分이 各有要妙存焉하니. 如月信方絶이면 一三五日交合者는 成男하고 二四六日交會者는 成女하며 過此면 不孕이라.

12) 秦桂丸 : 子宮이 虛寒하여 攝精하지 못하여 孕胎하지 못하거나, 혹은 肥婦가 多痰하여 孕胎하지 못하는 것을 다스린다(熟附子 茯苓各5兩, 桂心 厚朴 川杜冲 秦艽 香白薇 川牛膝 沙蓼 半夏 乾薑各2兩, 人蔘4兩, 細辛5兩)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藥으로 通하게 해야 하니 이는 經閉이고, 신체가 건강한데 우연히 風寒에 感觸되어 氣滯血凝되면 이는 通氣活血하여야 하니 이는 氣滯이고, 先天不足 혹은 病後에 調理失調하여 眞陰이 虧損되어 火熱이 煎熬하거나, 오랜 병으로 潮熱盜汗하면 癆瘵의 症候를 보이게 되는데, 이는 滋陰養血淸火藥으로 다스려야 하니 이는 血枯이다. 이와 같이 그는 閉經病因이 여러 가지이므로 原因을 살펴 論治하면 淸血瘀, 氣滯, 血枯의 세 가지로 다르므로 活血, 理氣, 養陰으로 분별하여 調治하였으며, 脾胃損傷으로 인한 자는 마땅히 脾胃調理를 위주로 하여 氣血이 充滿하면 月經이 저절로 調節된다고 하였다[13].

痛經은 行經時에 小腹과 腰腿가 모두 아픈 것인데, 이는 곧 瘀血이고 月經에 당해서 血熱氣滯한 것이므로 通利活血하는 藥으로 다스린다고 하였다. 月經病은 위의 세 가지 血凝의 병과 痛經 등으로 槪括하였으며, 그 뒤에 나머지의 자세한 證治를 설명해 놓았다.

一切의 月水不調를 通治하는 處方으로는 四製香附丸과 丹蔘散을 爲主로 하였으며, 단 婦人의 月水가 이삼개월간 없으면 반드시 驗胎法을 써서 姙娠의 與否를 확인한 뒤에 藥을 써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陳自明이 처음으로 제시한 川芎驗胎法으로써, 胎가 있는지를 시험해 보고자 할 때는 川芎을 가루로 만들어서 空腹에 진하게 달여서 묵 달인 물과 섞어서 복용케 해 보아서 腹內에서 微動하면 胎가 있는 것이라 하였는데, 이는 현대 의학적으로도 小量의 川芎이 子宮의 收縮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가진다고 하여 實驗的으로 證明이 된 것이다[14]. 그리고 婦人病이 男子보다 甚하므로 더더욱 신중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月水不調에서는 陳自明·劉完素·李杲·戴思恭·李梴·萬全의 설을 인용하여 月水不調에 대한 各家의 原因과 診斷·證治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陳自明의 논술은 『婦人大全良方·調經門』의 것인데 "衝任之脈 起于胞中 爲經絡之海 上爲乳汁 下爲月經"이라고 하여 乳汁과 月經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으며, 모두 衝任脈의 作用임을 말한 것이다[15]. 萬全의 논술은 『萬氏女科·調經章』의 論述인데, 經不調의 原因을 脾虛, 衝任損傷, 痰脂凝塞의 세 가지로 나누었으며, 그 중 痰脂凝塞은 朱丹溪의 論述에서 비롯된 것으로 萬氏가 여기서 더욱 闡發시킨 것이다.[16] 그 內容은 肥滿한 자는 膏脂가 充滿하여 玄室의 門이 열리지 않고 痰을 낀 자는 痰涎이 壅滯하여 血海의 파도가 흐르지 않으므로 期日이 지나서야 비로소 經度가 行하고 또는 수개월에 한번 行하여 결국 濁과 帶와 經閉가 되어 無子하게 된다고 하였다[17].

月閉에서는 陳自明과 張從正, 李杲, 朱震亨, 王綸, 李時珍, 萬全, 張介賓 등의 月閉의 原因과 診治에 대한 主張을 실어 놓았다. 그 중 李杲는 女子不月이 모두 心脾에서 發生하며, 婦人의 脾胃가 虛하여 오래되면 中消가 되고 血枯經絶이 되며, 心包脈이 洪數하면 血海가 乾枯하여 經不通이 되며, 『內經』에 나온 "小腸移熱於大腸"하게 되면 '癰瘕'와 '沈'이 되며, 脈澁不利하여 月事가 不利하게 된다고 하였다. 『素問·評熱病論』의 '胞脈閉'에 대한 언급을 인용하였는데, 胞脈이 火에 屬하여 胞中에 絡하는데 지금 氣가 肺로 上迫하여 心氣가 아래로 通하지 못하게 되므로 月經不通이 된

13) 張奇文. 月經病證(婦科醫籍輯要叢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 5.

14) 李經緯·林昭庚. 中國醫學通史(古代卷).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p. 356.
陳自明. 婦人大全良方(四庫全書本). 大星文化社. 서울. 1995. p. 617.

15) 李經緯·林昭庚. 中國醫學通史(古代卷).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p. 356.

16) 張奇文. 月經病證(婦科醫籍輯要叢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p. 24~25.

17) 傅沛藩等. 萬氏女科(萬密齋 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 361.
"婦人經候不調有三 : 一曰脾虛 二曰衝任損傷 三曰痰脂凝塞. 治病之工 不可不審. 脾胃虛弱者 …… 衝任損傷者 …… 痰脂凝塞者 蓋婦女之身 內而腸胃開通無所阻塞 外而經隧流利 無所碍滯 則血氣和暢 經水應期. 惟彼肥碩者 膏脂充滿 玄室之戶不開 挾痰者痰涎壅滯 血海之波不流. 故有過期而經始行 或數月而經一行 及爲濁爲帶爲經閉 爲無子之病."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다고 하였다[18]. 李梴는 또 『內經』을 引用하여 經水가 막힘이 少陽經과 연관되므로 少陽 한가지를 다스리면 된다고 하였다. 李梴은 經水不通이 虛·熱·痰·氣의 네가지 症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月水不調도 마찬가지이므로, 이에 따라 診治할 것을 主張하였다. 李時珍은 有餘와 不足의 두가지 증상에 따라서 다스릴 것을 主張하였다. 張介賓은 血枯와 血隔을 나누어 다스렸다.

來止腹痛에서는 張從正과 劉完素, 朱震亨, 王肯堂, 張介賓 등의 論說을 인용하였다. 그 중 丹溪의 醫論은 經前·經期·經後의 時期가 다름에 따라 虛實寒熱의 辨證施治를 구분하였는데, 이는 隋唐時代에 대체적으로 風冷의 邪氣로 보아서 論治하였던 것에 비교하면 매우 進步된 것이다[19]. 그는 『丹溪心法·婦人門』에서 月經腹痛의 時期와 樣相에 따른 辨證施治를 구분하여 提示하였다[20].

血色痛壞에서는 朱震亨과 李梴의 說을 引用하였는데, 朱震亨의 『格致餘論·經水或紫或黑論』에서 引用한 것으로 血과 氣의 밀접한 관계를 記述하였고, 또 月經週期·經期·經色·經質의 각종 변화와 辨證의 관계를 논술하여, 月經不調가 寒熱虛實이 다름이 있으므로 『諸病源候論』에서 말한 "風冷"에 구애받아서 溫熱之劑를 濫用하지 말 것을 말하였다[21]. 李梴은 前賢의 血色異常과 관계된 논술을 인용하고 더불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여 辨證規律을 歸結시켰으며 相應하는 方藥을 제시하여 月經病의 治療에 참고가 될 만 한 것이다[22].

3. 胎前

胎孕時에 姙産婦의 衝任脈이 旺盛하고 元氣가 充足해야 胎孕이 유지됨을 强調하였다. 또 胎孕時의 疾病發生의 原因으로, 血氣不足 또는 衝任脈이 虛한 데다 外感六淫·內傷七情·飮食傷脾胃·淫慾損眞源을 들었다. 胎孕時의 治療大法은 安胎養血順氣이며, 血虛엔 四物湯加 香附·砂仁, 氣虛엔 四君子加 香附·砂仁을 大法으로 삼았다. 또, 古人이 人蔘과 砂仁을 함께 쓴 것에 대해 補氣와 順氣를 함께 하므로, 胎前에 좋다고 하였는데, 人蔘에 砂仁을 합하여 쓰면 補하되 滯하지 않으며, 運行하되 燥하지 않는다. 만약 孕婦의 몸이 건강하면 産母와 胎兒에 病이 없으므로, 補劑를 濫用할 필요가 없다[23].

그 뒤에는 胎前의 疾病 중에서 月別로 發生하는 疾病의 診治를 列擧하였는데, 惡阻·子喑·子懸·子煩·子腫·胎水·兒枲·轉胞·胎熱·滑胎 등이다. 이어서 漏胎·子淋·子瘖·姙娠心痛(子懸)·子嗽·子癎·胎

18)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圖書出版 一中社, 서울, 1992, p. 97.
月事不來者 胞脈閉也 胞脈者 屬心而絡于胞中 今氣上迫肺 心氣不得下通 故月事不來也 帝曰善.

19) 張奇文, 月經病證(婦科醫籍輯要叢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 153.

20) 朱震亨, 丹溪心法附餘, 大星文化社, 1992, 서울, pp. 695~696.
經候過而作痛者 乃虛中有熱 所以作疼 經水將來作疼者 血實也(一云氣滯) 四物加桃仁黃連香附 臨行時 腰疼腹痛 乃是鬱滯有瘀血 宜四物加紅花桃仁莪朮玄胡索香附木香 發熱加黃芩柴胡 紫色成塊者 熱者 四物加黃連柴胡之類 …… 經行數少或澁或痛 四肢疼痛 加延胡沒藥白芷 與本方等淡醋湯調下末子 經候不調 心腹疼痛 只芎歸二味 名君臣散 …… 經欲行 臍腹絞痛 加玄胡檳榔苦練炒木香減半 ……

21) 張奇文, 月經病證(婦科醫籍輯要叢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 38.

大田大學校韓醫科大學 第7期卒準委, 國譯丹溪醫論, 大星文化社, 서울, 1993, pp. 101~102.
經水者 陰血也 陰必從陽 故其色紅 稟火色也. 血爲氣之配 …… 往往見有成塊者 氣之凝也 將行而痛者 氣之滯也 來後作痛者 氣血俱虛也 色淡者 亦虛也 錯經妄行者 氣之亂也 紫者 氣之熱也 黑者 熱之甚也. 人但見其紫者 黑者 作痛者 成塊者 率指爲風冷 而行溫熱之劑 禍不旋踵矣. 良由病源論 月水諸病 皆曰風冷乘之 宜其相習而成俗也. …… 熱甚者 必兼水化 所以熱則紫 甚則黑也. 況婦人性執而見鄙 嗜欲加倍 臟腑厥陽之火 無日不起 非熱而何. 若夫風冷 必須外得 設或有之 蓋千百而 一二者也.

22) 張奇文, 月經病證(婦科醫籍輯要叢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 135.
李梴, 原本編註醫學入門 4卷 , 大星文化社, 서울, 1982, p. 30.

23) 張奇文, 胎産病證,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 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寒·痛胎 등의 妊娠病中에서 혼하여 이름이 난 것을 列擧하였다. 이 중 妊娠心痛에 대해서는 眞心痛이 아니며 胎氣가 上升하여 일어난 것이므로 子懸이며, 이는 妊娠 4~5月의 子懸과도 구분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妊娠心痛이 眞心痛이 아니고, 寒邪나 客熱로 胎氣가 上升하여 胃口를 壅塞하여 일어난다고 본 것으로, 王肯堂의 『證治準繩』이나, 『宋氏女科秘書』, 『葉氏女科證治』에 나오는 意見을 따른 것이다[24].

그 외에 妊娠傷寒·妊娠痢疾·妊娠泄瀉不渴·妊娠二便不通·妊娠怔忡脈亂·妊娠冒暑·妊娠傷食·妊娠瘧亂·妊娠遺尿·妊娠尿血·妊娠臟躁·妊娠腹中兒哭·妊娠胎不長·妊娠心痛·妊娠腹痛·妊娠小腹痛·妊娠腰痛·妊娠胎動不安 등 胎前病 중 때로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 辨證施治를 기술하였다. 그 중 妊娠傷寒에서 六經治例는 妊婦傷寒과 일반적인 傷寒이 같으나, 다만 妊婦는 淸熱安胎를 爲主로 하여야 하며 脈證主治에 따라서 治療하더라도 절대 胎氣를 犯하여서는 안됨을 强調하였다. 그는 萬密齋의 妊娠傷寒의 治法을 따랐는데, 在表發汗은 香蘇散, 和解表裏엔 黃龍湯, 在裏宜下엔 三黃解毒湯을 썼다. 또 妊娠腹痛에 있어서는 宋代以前의 醫術에서는 대개 風冷으로 立論하여 用藥이 溫燥에 치우쳤었는데, 宋·齊仲甫 이후에는 外感六淫과 飮食不節로 인한 損傷脾胃, 房事不節로 胞脈이 損傷됨으로 腹痛이 일어나 胎漏·墮胎의 위험이 있음을 언급하였고, 葉天士는 『女科準繩』에서 腹痛의 辨證을 寒熱虛實로 나누어 用藥하였으며, 妊娠小腹痛에 대해서는 胞絡이 虛하여 風寒이 相搏한 緣故이므로 이에 따라 施治하였는데, 沈金鰲는 葉天士의 論述을 따르고 여기에 자신의 意見을 덧붙여서, 腹痛의 樣相에 따라서 자세히 辨證施治하였다[25].

그는 總括하여 妊娠時의 槪括的인 用藥을 論述하였는데, 일체 外因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氣血이 虛한 所致이므로 人蔘·當歸로 補氣補血하고, 邪熱이 많으면 氣血이 沸騰하여 胎가 不安해지므로 黃芩으로 凉之하고, 또 胎는 脾에 매여 있으므로 白朮·炙甘草로 脾를 培補하고, 陳皮·香附子·蘇梗 등으로 理氣하고, 砂仁으로 開胃理中하고, 杜仲으로 腰痛을 다스리고, 白芍藥으로 腹痛을 다스리며, 內熱口渴에는 砂仁을 빼고 麥門冬을 쓰며, 下血이 있으려고 하면 生地·地楡 등을 쓴다고 하였다.

자신의 醫論 뒤에 各家의 중요한 論述을 인용하였는데, 胎動不安에서 引用한 丹溪의 "産前當淸熱養血"의 說은 後世에 影響이 매우 많아서 後代의 醫書에 많이 引用된 論說이다. 여기서 朱丹溪는 産前安胎에 白朮·黃芩을 要藥으로 提示하였는데, 실제는 『金匱要略』에서 "婦人妊娠 宜常服當歸散主之"라고 한 것에 基礎한 것이다. 當歸散은 養血健脾·淸熱安胎하는데, 朱丹溪는 當歸散중의 白朮·黃芩을 安胎의 要藥으로 꼽은 것이니, 仲景의 奧旨를 心得한 것이다. 그러므로 後人이 追崇하게 된 것이다[26].

臨産諸疾에 대한 各家의 論述을 인용한 뒤에 徐之才의 逐月養胎方을 실었는데, 晋代의 王叔和는 十二經 중에서 手太陽·手少陰 두 經絡은 본래 經血을 主하여 血을 擁護하여 養胎하므로 제외하고, 그 나머지 十經絡을 十個月에 配屬하여 五行順序에 따라 配列하였고, 北齊의 徐之才가 여기에 基礎하여 逐月養胎를 記述하였고, 이후에 『諸病源候論』, 『備急千金要方』, 『外臺秘要』 등의 서적이 이를 轉載하였다. 逐月養胎說은 胚胎가 여러 가지의 生長順序가 있음을 論述하여 孕婦에게 月分마다의 다른 飮食禁忌·生活起居·情志調養을 提示하였다. 逐月養胎說은 古人들이 妊娠期의 保健과 孕婦와 胎兒의 건강유지를 중시하였고, 당시의 經驗을 總結하였음을 알 수 있다. 懷妊한 사람에게 그 經絡에 뜸을 뜨면 墮胎하게 된다는 설은 반드시

24) 張奇文, 胎産病證,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p. 212~214.
25) 張奇文, 胎産病證,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p. 55~58.
26) 張奇文, 胎産病證,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p. 4~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옳은 점도 있으며, 그 경락에 灸刺하면 오히려 補胎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病情과 灸刺方法에 根據하여 구체적으로 是非를 구별하여 써야 할 것이다[27].

마지막에 『保産要錄』을 인용하여 受胎시에 産婦가 지켜야 할 禁忌와 正産이 아닌 弄胎와 試月에 대해 수록하였고, 胎産書 중에서 『保産要錄』이 가장 좋으므로 胎前·小産·臨産·産後의 各 門에 인용하였음을 밝혔고, 産婦들이 이를 알아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 인용된 內容을 보면 産前과 臨産時, 그리고 産後에 臨床에서 活用하기 좋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의 沈金鰲도 그 著者가 靑溪主人이라고 쓴 것 외에는 정확한 姓名과 出處를 알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4. 小産

小産은 元氣虛損, 또는 勞怒로 傷情하여 內火가 發動하면 墮胎된다고 하여, 虛와 火에 屬하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輕重을 가려 다스릴 것을 주장하였고, 或者들이 말하는 風冷이 子臟을 損傷하여 墮胎하게 된다는 說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그는 小産과 半産을 가지가 시들어 꽃과 과실이 떨어지는 것과 과실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그 껍질을 깨고 그 과실을 얻어내는 것에 비유하였다. 그 胎臟이 損傷되고 胞系가 끊어져서 墮胎하게 되므로, 小産 후에는 열 배로 조치하여야 하며, 補血生肌養臟하고 生新去瘀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墮胎와 小産 후의 調護를 특히 중시하였고, 小産의 損傷이 大産보다 重함을 비유하였고, 더불어 補虛去瘀의 治療原則을 제시하여 여러 번 墮胎한 자는 마땅히 防治를 먼저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28]. 그는 王綸의 『名醫雜著』를 引用하여 小産이 三五七月에 잘 일어나므로, 小産이 되었던 사람은 小産이 있은 후에 養氣血·固胎元하는 약을 복용하여 補虛하고, 墮胎가 일어나기 전인 2개월반과 4개월반, 6개월반에 미리 淸熱安胎하는 약 數帖을 복용하여 이를 豫防해야 한다고 하여 小産을 미리 豫防하는 方法을 제시하였다.

脈法에서는 『脈訣』과 『脈經』을 인용하였는데, 『脈訣』에서는 半産漏下의 脈은 革脈이며 弱하면 血이 耗損된 것이므로 위험하다고 하였고, 『脈經』에서는 陰脈이 浮而緊하면 半産墮胎한다고 하였는데, 沈金鰲는 여기서 말한 脈들은 다 內因으로 墮胎되는 것이므로, 跌扑挫犯 및 毒藥을 誤服하여 생긴 墮胎에서는 이에 拘碍되지 않음을 밝혔다.

5. 臨産

胎前과 産後에 모두 疾病이 發生하기 쉽지만 臨産時에는 그 위험이 더욱 큼을 밝히고, 難産과 死胎, 臨産血暈, 胞衣不下, 出産후의 膀胱과 子宮下垂 등의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症狀과 處方을 列擧하였다. 그리고 臨産危症중에서도 偏産·倒産·橫産·碍産·盤腸産·悶臍産 등이 生死가 往來하는 危症이지만 당황하여 요란하게 대처하면 産母가 겁을 먹어서 더욱 어려워지므로, 침착하게 대처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前賢의 論述을 수록하여 參考할 것을 권하였는데, 胎前門에서 밝힌 대로 『保産要錄』을 주로 인용하여 臨産時에 여러 경우에 대한 대처법을 자세히 기술하였고, 또 『達生編』에서 出産에 임하는 자세와 服藥에 대해서 인용

27) 張奇文, 胎産病證,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p. 1~2.
李炳國, 王叔和脈經, 癸丑文化社, 서울, 1985, p. 230.
平妊娠胎動血分吐下腹痛證第二
婦人懷胎一月之時足厥陰脈養 二月足少陽脈養 三月手心主脈養 四月手少陽脈養 五月足太陽脈養 六月足陽明脈養 七月手太陰脈養 八月手陽明脈養 九月足少陰脈養 十月足太陽脈養 諸陰陽各養三十日 活兒 手太陽少陰不養者 下主月水 上爲乳汁 活兒養母 懷娠者 不可灸刺其經 必墮胎

28) 張奇文, 胎産病證,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p. 70~7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하였다.

脈法에서는 『脈經』과 『脈訣』을 인용하여 臨産時의 脈과 易産, 難産의 脈을 구분하였다. 여기서 '離經脈'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脈經』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말이다. 李梴은 『醫學入門·婦人門』에서 '離經脈'에 대해서 臨産하여서 여섯 번 이르는 것을 '離經'이라고 부른다고 하였고, 『難經·十四難』에서 "脈에 損과 至가 있는데, 一呼에 두 번 뛰는 것이 平脈이고, 一呼에 세 번 뛰는 것이 離經脈이며, 一呼에 한번 뛰는 것이 離經이며, 二呼에 한번 뛰는 것이 奪精이라"고 하였으며, 『脈訣匯辨』에서 해석하기를 "대개 孕婦가 出産에 臨해서 또한 離經脈이 나오는데, 이는 일곱·여덟번 이르는 것에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다. 가령 어제 浮脈이었다가 지금은 沈脈이 나오고, 어제 大脈이었다가 小脈이 나오고, 어제 遲脈이 오늘 數脈이 나오고, 어제 滑脈이다가 지금 澁脈이 나오는 것이니, 단지 평소의 평범함을 떠난 맥이므로 離經脈이라고 이른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總括하면 浮數散亂한 맥이다. 臨證에 참고할 만하다[29].

이어서 産難, 死胎, 胞衣不下에 대해서 各家의 辨證과 處方을 골라 실었으며, 臨産斟酌에서 『保産要錄』을 인용하여 臨産時에 姙婦와 産婆가 알아야 할 항목들을 실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에도 分娩時에 産母에게 유용한 논술이 많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陣痛이 시작되었을 때, 産母가 미리 힘을 주는 것을 警戒하였는데, 橫生·倒産의 難産의 대부분이 잘못 힘을 주어서 일어나게 됨을 말하였다. 産母는 安心定氣하며 자연스럽게 맡겨두고 痛症을 참으며, 주위의 사람들도 말을 많이 하거나 당황하여 산모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脈訣』에서 陣痛이 시작되면 半日 뒤에 出産함을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그는 半日陣痛에 대해서 拘碍받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② 出産에 臨해서 産母가 몸을 구부리고 잠자거나 눕는 것을 경계하였는데, 姙娠 八九月에도 警戒할 뿐 아니라 出産이 임박하여서는 더욱 주의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産母가 痛症을 두려워하여 허리를 구부리면 胎가 몸을 돌리는 것이 순탄하지 못하여 倒産이 되거나 難産이 됨을 警戒하였다. 여기서도 産母가 心氣를 安定하고 出産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③ 出産季節에 따라서 産室의 溫冷을 적절히 調節할 것을 당부하였다.

④ 橫生의 대처법을 언급하였는데 여기서 아기의 팔이 나오면 소금 반푼 정도로 태아의 수심을 문지르고 香油를 발라서 천천히 들여보낸다고 하였는데, 萬全은 이에 대해 소금을 문지르면 아기가 놀라서 위로 치밀어 올라가서 産母가 위험해지므로 절대로 그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⑤ 死胎와 碍産, 偏産, 倀后, 胞衣不下, 盤腸産, 悶臍生에 대한 대처법을 기술하였다.

亟齋居士의 『達生編』에 六字眞言 '睡·忍痛·慢臨盆'을 인용하였는데, 이는 곧 臨産의 要訣이다. 편히 잠을 자면 첫째 정신적인 압력을 피할 수 있고, 둘째 체력을 보존할 수 있으며, 통증을 참으면 두려워하여 躁動하는 것을 豫防할 수 있고, 천천히 분만에 임하면 마음을 넉넉히 먹고 조용히 기다려서 適時에 힘을 쓸 수 있다. 情緖가 安定되고 體力이 充滿하면 자연히 順産하게 된다[30]. 또, 臨産시에 쓰이는 回生丹, 鼠兎二丸 등의 약들이 大破血하고 耗氣하는 香竄之藥이므로 産後에 禍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였으며, 다만 芎歸湯·佛手散의 두 처방은 宿血을 몰아내고 新血을 生하므로 産後에 無病하며 有益無損하므로, 기괴한 藥만을 좇아서 産婦를 傷하게 함을 경계하였다.

29) 張奇文. 胎産病證.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p. 251~252.

30) 張奇文. 胎産病證.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 25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6. 産後

産後에는 眞元이 大損하고 氣血이 空虛하므로, 먼저 大補氣血해야 하며, 다른 疾病이 있더라도 本이 아닌 末로 보아서 다스리며, 혹은 去邪하고자 하더라도 반드시 補益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丹溪의 主張을 좇은 것으로, 丹溪는 임상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丹溪心法』에서 "産後有病 宜先顧正氣"라 하여 産後의 一切의 疾病은 血虛가 많으므로, 반드시 大補氣血을 原則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이후의 婦産科에 큰 영향을 끼쳤다[31].

沈金鰲는 이에 덧붙여서 氣虛·血虛·血悶·血脫로 證候를 구별하고 이에 따라 補하거나 瀉하여야 한다고 하고, 産後에 氣血이 크게 虧損되어 虛症이 많기는 하지만 개중에는 虛實을 兼하거나 혹은 완전히 實한 자도 있으므로 分別치 않으면 안 됨을 强調하였다. 張介賓이 産後의 虛症과 不虛症, 虛實挾雜症, 專實症을 자세히 論據하였는데, 이는 朱丹溪 以後에 大補氣血을 우선해야 한다는 관점을 反駁한 것으로, 産後病은 마땅히 隨證·隨因하여 虛實을 分辨하고 症狀이 있으면 不得不 그에 맞는 藥을 써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切診을 통해 産後腹痛의 虛實을 鑑別하는 方法을 설명하였다. 沈金鰲는 이를 各家의 論說을 실은 부분에서 引用하였고 景岳의 論述이 특히 婦科방면에서 精密하므로 참고할 것을 권하였다[32].

沈金鰲는 자신의 論說에서 産後病 중에 가장 難治인 것으로 蓐勞를 꼽았는데, 이 論說은 『葉氏女科證治』의 蓐勞門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蓐勞는 肺病과 같은 것으로, 張景岳의 『婦人規』와 『葉氏女科證治』에서 모두 蓐勞의 病因病機·病證治法方藥을 모두 論하였으며, 治療에 있어서 調理脾胃와 扶助正氣를 강조하였다.

産後三大病은 仲景이 『金匱要略·婦人産後病脈證治第二十一』에서 産後에 新産亡血로 痙·鬱冒·大便難의 세가지 病이 일어나므로, 치료에 반드시 津液과 陰血을 살펴야 함을 主張하였고, 이는 後世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沈金鰲도 이에 대해서 病情을 살폈을 때 세 가지가 서로 원인이 된다고 보아서 각각에 대한 處方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仲景은 産後에 大承氣湯을 썼는데, 이는 産後病에 있어서 病機에 맞추어 治療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沈金鰲는 산후의 虛症을 더 염두에 두어서 津液을 補充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蘇麻粥을 主方으로 하였다[33].

그 뒤에는 産後에 자주 앓는 疾病들을 言及하여 辨證施治하였고, 그 뒤에 産後諸證을 內因으로 인한 16種의 病症과 外因으로 인한 8種의 病症, 內外因을 兼한 것 3種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질병들을 辨證施治하였다. 이와 같이 産後의 疾病이 繁多하므로 고충이 많음을 역설하였다.

이어서 産後에 乳汁不通에 관한 글은 薛己의 『校注婦人良方』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 받은 위에 沈金鰲 자신의 새로운 意見을 첨가한 것으로 임상에 참고할 만 하다. 이와 같이 本人의 醫論을 서술한 앞부분도 많은 부분이 前人의 醫論에서 빼어난 부분을 引用하고 그 뒤에 本人의 意見을 加味하는 식으로 논술하였다.

脈法에서는 『脈經』과 『脈訣』, 陳自明을 인용하였는데, 총괄적으로 脈象이 沈緩細滑하면 順證이고, 그 반대이면 逆證임을 알 수 있다.

그 뒤의 産後脈證總論에서는 張仲景과 劉完素, 朱震亨, 李梴, 薛己, 王肯堂, 張介賓의 産後疾病에 대한 論述을 인용하였고, 感冒風邪에서는 陳士鐸의 『石室秘錄』에서 産後에 太陽, 少陽, 陽明, 少陰, 厥陰에 風邪가 感觸되었을 때의 治療와 不治

31) 李經緯·林昭庚, 中國醫學通史(古代卷),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9, p. 424.

32) 張奇文, 胎産病證,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p. 290~292.

33) 張機, 仲景全書, 圖書出版 一中社, 서울, 1992, p. 414.
問曰 新産婦人有三病하니 一者病痙이오 二者病鬱冒오 三者大便難이니, 何謂也오? 師ㅣ 曰: 新産血虛할새 多汗出하고 喜中風이라 故令病痙이라. 亡血復汗寒多라 故令鬱冒라. 亡津液胃燥라 故大便難이라.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證 등을 인용하였다. 産後要論과 産後當知에서는 각각 『醫宗金鑑』과 『保産要錄』을 인용하여 産後에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과 産婦가 産後에 조심하여야 할 점, 胎兒에게 주의하여야 할 점을 자세히 기록하여서 실제적으로 産後의 조리에 쓰일 수 있게 하였다.

7. 帶下

帶下의 原因을 네 가지로 보았는데, 첫째는 氣虛로 脾精이 상승치 못하고 下陷하여 帶下가 되고, 둘째는 胃中의 濕熱과 痰이 帶脈으로 流注하여 膀胱으로 넘쳐서 濁液이 되고, 셋째는 五臟이 傷하여 五色의 帶下가 되고, 넷째는 風寒이 胞門으로 들어가거나 經脈에 直中하여 臟腑로 流轉하여 된다고 하였다. 沈金鰲는 帶下病의 病因病機가 脾虛로 인해서 많이 발생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바로 『醫學心悟』에서 이른 바 "脾氣가 壯旺하면 飮食의 精華가 氣血을 生化하여 帶下가 일어나지 않고, 脾氣가 虛弱하면 五味의 飮食이 帶下를 일으켜서 氣血을 生化하지 못한다."고 한 것과 같다. 그래서 脾虛하여 濕이 下陷하는 것이 帶下病의 主要病因病機라고 하였고, 이를 細分하여 肝鬱脾虛·脾腎兩虛·心脾兩虛로 인한 帶下로 나누어서 辨證施治하였다[34]. 두 번째로 언급한 胃中濕熱과 痰이 帶下의 원인이 된다는 설은 丹溪가 주장한 것으로 그는 治法으로 燥濕을 우선하며 濕痰이 下注한 자는 升提할 것이며, 아울러 濕痰으로 帶下病이 일어났더라도 寒·熱·虛·實의 변화와 인체의 稟賦가 같지 않으므로 그에 맞추어서 치료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帶下의 臨床治療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意義가 있는 것이다[35]. 五色帶下와 風寒이 胞門으로 들어가서 帶下가 된다는 설은 隋·巢元方의 『諸病源候論·婦人雜病諸候』에서 처음 언급한 것으로 後世의 醫家들이 이에 기초하여 醫論을 발전시켰다. 巢氏는 帶下候·帶五色俱下候·帶下青候·帶下黃候·帶下赤候·帶下白候·帶下黑候·帶下月水不利候·帶下月水不通候에서 帶下病과 五色帶下의 原因과 證候에 대해 자세히 論하였다. 帶下病이 風冷의 寒邪가 胞絡으로 들어가서 일어나는데, 여기에 勞傷體倦·房勞過度·內外傷感을 兼하여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風冷寒邪가 胞絡으로 들어가면 血이 凝滯되어 月經不調가 일어나고 혹은 閉經이 되며 甚하면 血結하여 안으로 結聚되어 血瘕가 된다고 하였다[36]. 沈金鰲는 이에 기초하여 帶下의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辨證治療를 자상히 論述하였다.

脈法에서는 『脈經』을 인용하였는데, 婦人이 漏下赤白하고 量이 많으면 脈은 遲小虛滑한 것이 당연하니 이는 氣血이 虛寒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急疾하고 大緊實數하면 脈證이 相反된 것이므로 邪症이다. 李梴은 腎脈이 浮遲하면 帶濁의 症狀이 있음을 밝혔다.

帶下源由證治에서는 孫思邈·陳自明·成無己·張從正·戴思恭·李梴·王肯堂·吳昆·武之望 등의 醫論을 실었다. 孫思邈은 『諸病源候論』에서 언급한 三十六疾을 인용하였는데, 이는 廣義의 帶下病으로 經帶胎産의 제질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말이다. 巢元方은 張仲景이 논한 三十六種疾이 다 子臟冷熱勞損으로 말미암아서 帶下를 끼게 된 경우로 陰內에서 일어나는데, 條目이 혼란스럽고 制方과 一致하지는 않지만 仲景의 뜻이 玄甚하여 愚淺한 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그 문장은 다르지만 그 義理는 實際로 같다고 하여, 帶下三十六疾이 仲景에 根本한 것임을 말하였다[37].

34) 張奇文, 婦科雜病(女科醫籍輯要叢書),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 26~27.

35) 方廣, 丹溪心法附餘, 大星文化社, 서울, 1992, p. 717.
帶下 赤屬血 白屬氣 主治燥濕爲先 漏與帶 俱是胃中痰積流下 滲入膀胱 無人知此 只宜升提 甚者 上必用吐以提其氣 下用二陳湯加蒼朮白朮 仍用丸子 又云 赤白帶下 皆屬血 出於大腸小腸之分
張奇文, 婦科雜病(女科醫籍輯要叢書),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16~17.

36) 巢元方, 巢氏諸病源候論, 大星文化社, 서울, pp. 273~27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陳自明의 論은 『諸病源候論』의 五色帶下의 이론에 基礎하여 進一步한 內容을 제시하였는데, 帶下에 五色이 차이가 있지만 "사람이 帶脈이 있어서 腰間을 가로로 둘러서 띠를 묶은 것과 같은 모양인데, 病이 여기서 생기므로 帶라고 부른 것이다"라고 하여, 帶下의 발생이 五臟虛損과 연관이 있지만 반드시 帶脈이 損傷된 뒤에야 帶下가 생김을 제시하였고, 壯脾胃·升陽氣하며 各 經에서 나타나는 證候에 따른 藥으로 佐할 것을 主張하여, 臨床上에 활용가치가 있다.

張從正은 『聖惠方』에서 帶下의 原因을 風冷으로 보아서 치료한 것과 巢元方이 '寒則多白 熱則多赤'이라고 한 말이 다 옳지 않다고 보고, 諸經의 熱이 帶脈에 쌓였다가 火가 從金化하여 白色이 되는 것이며 赤白痢는 邪熱이 大腸으로 전해진 것이고 帶下는 小腸에 전해져서 膀經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모두 治濕法으로 다스릴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帶下의 原因에서 濕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苦寒藥으로 正治하고 辛溫藥으로 從治한다."고 하여 현재의 임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王肯堂은 濕邪를 帶下의 成因의 하나로 보아서 治法도 凉燥와 溫燥로 나누었고, 病이 오래되고 攻下를 자주한 경우에는 凉補와 溫補로 나누어 다스렸다. 이와 같이 沈金鰲는 諸家의 說中에서 見害가 獨創的이면서도 臨床에 활용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하여 실었다.

8. 崩漏

沈金鰲는 崩漏의 原因을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火熱·虛汗·勞傷·氣陷·血瘀·虛弱이다. 崩漏의 證治는 東垣의 이론을 많이 계승하였는데, 虛寒과 勞傷, 氣陷에서는 沈金鰲 자신이 東垣에 根本하였음을 밝혔다. 여섯가지의 原因이 서로 다른 症狀의 原因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重複되기도 한다. 각각의 원인에 대해서 자세한 證治를 덧붙였는데 다음과 같다.

火熱의 原因은 ① 脾胃傷損하여 腎으로 下陷하여 相火와 相合하여 濕熱이 下迫하여 崩漏가 오는 것으로 白帶를 낀 것과 赤帶를 낀 것으로 나누어 施治하며, 大補脾胃하고 升降氣血을 爲主로 치료한다. ② 心氣不足하여 心火가 타올라서 血脈중에 旺盛하고, 또 脾胃가 失調하여 心火가 乘하여 崩漏가 되며, 肌肉顔色은 평상시와 같으나 經水가 불시에 暴下하게 된다. 大補氣血脾胃하고 心火를 누르는 藥을 약간 加하여 心을 다스리고 補陰瀉陽하면 崩이 저절로 낫는다. ③ 肝經熱로 血이 熱을 얻어서 下行하거나, 혹은 風熱이 肝經에 鬱結하여 血이 風을 얻어 妄行하거나, 혹은 怒氣로 肝火를 動하게 하여 肝血이 熱로 沸騰하거나, 脾經의 鬱熱로 血이 熱에 逼迫되어 歸經하지 않아서 崩漏하는 것이다. ④ 悲哀가 甚하여 胞絡을 損傷하여 血이 下注하거나, 血이 熱로 傷하여 脈象이 虛洪하고 紫黑色을 下血하거나, 血室에 熱이 있어서 崩漏하거나, 혹은 날씨가 심하게 뜨거워서 陽이 陰을 乘하여 經血이 飛騰하여 崩漏가 오는 경우다.

虛寒은 ① 心氣不足, 또는 勞役飮食不節로 寒證이 나오면서 崩漏하는 경우이니, 脈이 急弦하면 北方寒水가 많은 것이고, 脈이 洪脈이 나오면 命門胞絡의 火이다. ② 衝任虛衰하여 風冷이 胞中에 客乘하여 氣가 固攝하지 못하여 崩漏하는 경우이다. ③ 氣血勞傷으로 衝任脈이 虛하여 崩漏하거나, 經來時에 寒冷한 藥物을 過服하여 崩漏하는 경우이다

勞傷은 ① 勞役으로 脾胃가 虛弱해지거나 ② 思慮로 脾를 損傷하여 攝血하지 못하거나 ③ 憂思鬱結로 心經을 損傷하여 血이 妄行하거나 ④ 갑자기 大怒하여 肝을 傷하여 崩漏하는 경우다.

氣陷은 ① 飮食不節, 혹은 勞傷形體, 혹은 平素心氣不足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飮食勞倦으로 心

37) 巢元方, 巢氏諸病源候論, 大星文化社, 서울, p. 28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火가 脾를 乘하여 墮胎嗜臥하고 四肢不遂하며 困倦乏力하고 無氣力하니, 이는 脾土가 邪氣를 받은 것이다. 또 心主血하고 血主脈하는데, 두 가지가 邪氣를 받으므로 病이 脈에 있게 된다. 心系는 胞絡命門의 脈이며 月事를 主管하는데, 다 脾胃가 虛하여 心包가 乘하므로 漏下한다. 마땅히 除濕去熱益氣하여야 하며 調經升陽除濕湯을 썼으니, 이는 東垣의 『蘭室秘藏·婦人門』에 나온 것이다.

虛弱은 諸虛不足으로 오랫동안 胎孕하지 못하거나, 혹은 帶下漏血이 오래되거나 風寒冷熱이 衝任을 손상하여 崩中暴下하는 것이다.

마지막에 方廣의 『丹溪心法附餘』의 論說을 인용하여 崩漏의 治則을 말하였는데, 그는 七情過極으로 五志之火가 亢甚하면 崩漏가 오게 되며, 治崩의 순서로 처음에는 止血하여 그 흐름을 막고, 중간에는 淸熱凉血하여 그 根源을 맑게 하고, 末에는 補血하여 回復시킨다고 하였다. 만약 그 중에 한가지라도 빼다면 제대로 治療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本末을 빼지 말고 治療할 것을 당부하였다[38]. 沈金鰲는 이 塞流·澄源·復舊의 三法이 治崩의 要法이므로, 여섯 가지의 崩漏所由를 다스릴 것을 강조하였다.

崩漏源由證治에서는 各家의 崩漏에 대한 論說을 실어서 자신의 論說의 不足한 면을 보충하였다. 내용이 다음과 같다.

먼저 『素問』의 "陰虛陽搏謂之崩"은 崩漏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인데, 王氷注에는 "陰脈이 不足하고 陽脈이 盛搏하면 안으로 崩漏가 되어 血이 흘러내린다."고 하여, 少陽司天之氣에 風氣가 乘하여서 血崩이 오기 쉬움을 말하였다. 陳自明의 論은 血崩과 小産으로 出血이 過多하여 心痛하는 경우의 病因과 治法을 말하였다.

朱震亨은 東垣의 血崩治法에서 進一步하여서, 因寒·因熱·因勞가 崩漏를 이룰 수 있으니, 寒으로 인한 것에는 乾薑을, 熱로 인한 것에는 黃芩을, 勞로 인한 것에는 蔘芪에 升補하는 藥을 쓸 것을 주장하였고, 臨證에 마땅히 寒·熱·虛·實에 따라서 加減用藥해야 함을 强調하였다.

李梴은 崩漏의 治法으로 大補氣血·固衝止崩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仲景의 大溫經湯을 爲主로 하여 거기에 氣虛·血虛·虛寒 및 虛火의 서로 다른 증상에 대해서 辨證用藥·選方하였는데 임상에 잘 맞아서 後人이 쓰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또 東垣의 "內傷脾胃 百病由生"의 이론을 좇아서 膏粱厚味로 인해 脾胃에 濕熱이 쌓이면 濕熱이 相火와 相合하여 下注하여 迫血妄行하므로, 治療에 마땅히 升擧脾胃淸陽하여 除濕하여야 하며, 만약 相火가 盛한 자는 補陰瀉陽하여 降火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病因病機의 分析이 분명하여 後世에 濕熱과 虛熱崩漏의 治療에 실제적인 根據를 提供하는 것이다[39].

王肯堂은 前人의 理論과 經驗의 基礎 위에서 寒·熱·虛·實로 인한 崩漏의 각각의 脈證을 비교적 자세히 論述하였고, 萬全은 治崩의 病因에는 前賢의 설을 따랐고, 治療에 있어서는 急則治標하여 처음엔 止血하고 다음엔 淸熱하고 나중엔 補虛하는 세 단계의 치료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崩漏의 治療規律에 맞고, 이후에 方約之의 治崩三法의 基礎가 되었다.

9. 婦女雜病

婦女雜病에서는 婦女病 중에서 月經·胎産·崩中帶下病을 제외한 나머지 疾病중에서 婦女에게만 있는 疾病들을 주로 다루었다. 沈金鰲는 婦女病의 原因으로 七情을 중시하였는데, 『聖惠方』을 인용하여서 女子의 病이 男子보다 심한 이유를 들었다. 婦女는 慾心이 남자보다 심한데다가 嫉妒와 憂患·憎惡의 感情이 깊고 執着이 심해서 感情을 節制하지 못하며, 男子의 陽氣는 抑鬱되더라도 쉽게 발산되는데 비해서, 陰凝之氣는 鬱結되어 滯하

38) 方廣, 丹溪心法附餘, 大星文化社, 서울, 1992, p. 717.

39) 張奇文, 月經病證(婦科醫籍輯要叢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p. 277~28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기 쉬워서 쉽게 풀어지지 않아서 病根이 깊게 된다고 하였다.

婦女雜病중 쉽게 발생하지만 難治인 것으로 癆瘵와 積聚癥瘕와 浮腫의 세 가지를 들었다.

癆瘵의 원인으로 "先天氣血不足"이나 "虛勞로 經水不調"하거나, "心肺俱損하여 血脈이 虛弱"해져서 이루어지므로, 滋陰補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室女가 思慮로 傷心"하여 經閉되어 癆瘵를 이룬 것을 "乾血勞"라 하는데, 가장 難治이므로 益陰血하고 制虛火하여야 하며, 通經破血하는 藥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産後에 너무 일찍 犯房"하여 勞役過度하여 "産後勞"가 되는 데는 人蔘鰲甲散, 胡氏牡蠣散을 썼다.

積聚癥瘕는 王肯堂의 意見을 좇아서 밀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癥이고 움직이는 것은 瘕라 하였다. 癥에 대해서는 食癥과 血癥의 두 가지를 언급하였고, 瘕는 黃瘕·靑瘕·燥瘕·血瘕·脂瘕·狐瘕·蛇瘕·鰲瘕의 여덟 가지가 있다고 하였는데, 巢元方의 『諸病源候論·婦人雜病諸候』의 八瘕候에서 由來한 것이다. 巢氏는 婦人의 癥瘕가 丈夫와 다른데, 發病의 原因에 따라서 보면, 혹은 産後에 臟이 虛한데다가 寒氣를 받거나, 혹은 經水가 往來하는데 取冷이 過度하였거나, 혹은 經血이 다하지 않았는데 犯房하였거나, 經血이 往來시에 飮食失節하여서 發生한다고 하였다. 臨床證候에 따라서 말하자면 婦人의 癥瘕의 象은 妊娠한 것과 같아서 月經失調를 일으켜서 閉經·崩中·帶下·不孕이 되고, 혹은 脹滿疼痛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40]. 癥瘕이외에는 痃과 癖, 疝瘕, 腸覃, 石瘕에 대해서 차이점과 증치를 논술하였고, 마지막에 婦人積聚疾患이 종류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실제를 궁구하면 血의 病임을 강조하였다. 肝藏血하고 心主血하는데 婦人은 鬱怒가 많아서 肝을 傷하고, 憂思가 많아서 心을 傷하므로, 心肝이 모두 傷하면 血이 그 의지할 바를 잃고 妄溢하여 橫行하게 되며, 거기에 六淫과 七情에 感하면 血이 瘀滯하여 그 留滯된 臟腑에 따라서 百病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였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沈金鰲가 婦人病의 主된 原因을 七情所傷으로 본 것을 알 수 있다.

浮腫은 血分과 水分으로 나누어 치료하였는데, 이는 王叔和의 『脈經』중에 婦女의 水分과 血分에 有關한 記載가 자세히 나오는데, 이는 張仲景의 論点을 정리한 것이다[41]. 血分은 먼저 月經이 그치고 나서 四肢浮腫이 온 것이니 血化爲水한 것이고, 水分은 먼저 小便不通이 오고 浮腫이 온 뒤에 經水가 不通하는 것이니, 이는 水化爲血한 것이다. 그는 血分과 水分의 病이 다 外傷六淫·內傷七情·飮食失度·起居失宜로 인해 脾胃가 受傷하여 氣와 血이 모두 受傷한 뒤에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각각 구분하여 다스려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 陰中의 病은 다 肝脾가 損傷하여 온다고 하여, 이를 다스려야 하며, 그 당시에 陰中病은 醫師가 다스리기 어려웠으므로 『石室秘錄』의 그 당시의 用藥法을 참고할 것을 권하였는데, 이는 먼저 四物湯加減方으로 치료하여 효과를 보면 이는 虛症이므로 그에 맞게 다스리고, 효과가 없으면 熱痛이므로 方中에 梔子 3돈을 더하여 다스리면 奏效한다고 하였다. 나머지 陰痒·陰挺 등은 『雜病源流犀燭』의 前陰條에 실었다. 婦人의 乳疾중에서 乳癌·乳癰·乳吹 등의 疾患도 『雜病源流犀燭』의 身形門에 실었고, 나머지 乳漏·乳硬·乳泣에 대해서도 證治하였다.

그 뒤에는 虛勞·室女癆瘵·尊勞·積聚癥瘕·乳疾 등에 대해서 各家의 論說을 실었다. 虛勞에서는 王肯堂의 論說을 실었는데, 虛勞가 勞倦所傷의 병을 失治하여 發病한다고 하였는데, 沈金鰲가 按에서 말하기를 婦女의 虛勞는 多半이 經血로부터 由來하니 勞倦으로 말미암은 것은 반드시 內傷脾胃가 衝任에 미친 緣故이므로, 男子의 虛勞와는 같지가 않다고 하여 女性虛勞의 치료는 반드시 經血을 함께 다스려야 함을 강조하였다. 薛己는

40) 張奇文, 月經病證(婦科醫籍輯要叢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p. 96~97.

41) 張奇文, 月經病證(婦科醫籍輯要叢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p. 136~13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無熱虛勞를 內外眞寒·內外眞熱·內眞熱而外假寒·內眞寒而外假熱로 나누어 證治를 설명하였고, 『內經』의 "益火之源而消陰翳 壯水之主以制陽光"을 인용하여 眞水火의 不足을 모르고 寒熱藥으로 다스리면 병이 낫지 않고 도리어 새로운 질병이 새로 발생하므로, 火之源인 心과 水之主인 腎을 다스려서 眞陰과 眞陽을 補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積聚癥瘕證治에서는 薛己의 論說을 인용하여 癥瘕治療의 大法을 말하였는데, 形氣가 弱하면 먼저 調補脾胃를 爲主로 하고 消導藥으로 佐하며, 形氣가 充實하면 먼저 消導하고 補脾胃하는 藥으로 佐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실제 臨床에 유용한 설이다.

Ⅲ. 結 論

沈金鰲의 『婦科玉尺』에 대하여 硏究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었다.

1. 婦人科學은 文字가 없는 上古時代로부터 春秋戰國時代의 馬王堆醫書 및 『黃帝內經』 등을 거쳐, 많은 醫籍을 통해 理論과 臨床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明代에는 『萬氏婦人科』와 『校註婦人良方』 등의 많은 婦産科專門書가 출간되고 婦産科 특유의 辨證論治體系가 확립되었다. 이러한 基礎위에서 淸代의 婦産科는 풍부한 臨症經驗의 累積을 바탕으로 여러 종류의 우수한 婦産科 著作이 나왔는데, 淸代의 종합적인 婦産科 著作으로는 醫宗金鑑의 일부인 『婦科心法要訣』과 傅山의 『傅靑主女科』, 薛塡의 『女科經綸』, 吳立本의 『女科切要』, 沈金鰲의 『婦科玉尺』 등이 있다.

2. 『婦科玉尺』은 沈金鰲의 沈氏尊生書중에서 두 번째로 완성된 책으로, 후세에 비교적 영향을 끼친 婦産科 서적이다. 『素問』·『脈經』 등의 醫經으로부터 萬全·武之望 등의 明·淸代의 婦科專門著作에 이르기까지 약 40餘家에 이르는 有關論述을 引用하여 精密하게 取捨選擇하였고, 婦科의 經·帶·胎·産·嗣育·雜病의 각 종류의 疾病을 總括하여 臨床에 활용할 만하다.

3. 求嗣門에서는 男子의 養精, 女子의 養血을 강조하였을 뿐 아니라, 進火, 擇鼎 등의 性醫學의 範疇도 자세히 다루어 醫者가 참고하게 하였다.

4. 經閉의 病因이 血凝으로 인한 經閉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세히 論治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여, 血瘀, 氣滯, 血枯의 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그 치료도 活血, 理氣, 養陰으로 분별하여 調治하였으며, 脾胃損傷으로 인한 자는 마땅히 脾胃調理를 위주로 하여 氣血이 充滿하면 月經이 저절로 調節된다고 하였다.

5. 그는 婦女病의 原因으로 七情을 重視하였는데, 婦女의 陰凝之氣가 憂思鬱怒로 인해 發散되지 않아서 血을 主하는 心肝을 傷하여 諸病이 發生하게 된다고 하였다.

6. 臨床에서의 活用을 重視하여 胎産書 중에서 『保産要錄』이 가장 좋으므로 胎産의 各門에 인용하였음을 밝히고, 産婦와 産婆가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7. 小産은 虛와 怒火의 두가지 原因으로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風冷이 子臟을 損傷하여 墮胎하게 된다는 說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小産의 損傷이 大産보다 重하므로 墮胎와 小産 후의 調護를 특히 중시하였고, 補虛去瘀의 治療原則을 제시하여 여러 번 墮胎한 자는 防治를 먼저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8. 産後의 調治에 있어서 먼저 大補氣血을 爲主로 하여야 하지만, 疾病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血虛·氣虛·血悶·血脫의 症候를 分辨하여, 補血·補氣·行瘀하여야 하며, 氣血이 虛脫한 경우라도 瘀血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攻補를 兼해야 함을 主張하여, 張景岳의 理論을 계승하였다.
9. 沈金鰲는 崩漏의 原因을 火熱·虛汗·勞傷·氣陷·血瘀·虛弱의 여섯가지로 분류하였고, 주로 東垣의 이론을 많이 계승하였는데, 여섯가지의 原因이 서로 다른 症狀의 原因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重複되기도 하지만, 그 治療의 大法에 있어서는 方廣의 塞流·澄源·復舊의 三法을 써서 다스리면 빠짐없이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음을 强調하였다.

이와 같이 『婦科玉尺』은 歷代醫家의 理論과 沈金鰲자신의 臨床經驗을 集大成하여 이루어진 婦人科綜合著作으로서, 前人의 醫論을 取捨選擇함이 精密하여 後代의 醫家에게 많은 基準을 提示하였다.

參 考 文 獻

1. 兪愼初, 中國醫學簡史, 福建科學技術出版社, 福建, 1983.
2. 甄志亞, 中國醫學史,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3. 民衆書舘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서울, 1966.
4. 高大民族文化硏究所中國語大辭典編纂室, 中韓辭典, 高大民族文化硏究員, 서울, 1989.
5. 田思勝, 沈金鰲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6. 沈金鰲, 張慧芳等, 婦科玉尺(中醫古籍名著叢書),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6.
7. 洪元植·尹暢烈, 中國醫學史, 一中社, 서울, 2001.
8. 徐寄鷗, 沈金鰲先生傳略, 江蘇中醫, 1963, 3.
9. 薛淸泉, 全國中醫圖書聯合目錄,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1.
10. 傅維康, 中國醫學史, 醫聖堂, 서울, 1993.
11. 嚴世芸, 中國醫籍通考, 上海中醫學院出版社, 上海, 1991.
12. 李經緯·林昭庚, 中國醫學通史(古代卷),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9.
13. 王佰岳 江育仁, 中醫兒科學, 圖書出版 鼎談, 서울, 1994.
14. 渠時光, 中國藥學史, 遼寧大學出版社, 1989.
15. 尹淑香, 『幼科釋謎』學術思想淺析, 四川中醫, 1994.
16. 沈金鰲; 李占永 等 校注, 雜病源流犀燭(明淸中醫名著叢刊),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4.
17. 張建明, 哮喘有因血虛論, 中醫雜誌, 1992.
18. 牛兵占, 中醫婦科名著集成, 華夏出版社, 北京, 1997.
19. 成百曉, 懸吐完譯 詩經集傳下, 傳統文化硏究會, 서울, 1993.
20. 張奇文, 月經病證(婦科醫籍輯要叢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21. 方廣, 丹溪心法附餘, 大星文化社, 서울, 1992.
22. 巢元方, 巢氏諸病源候論, 大星文化社, 서울.
23. 張奇文, 婦科雜病(女科醫籍輯要叢書), 人民衛生出版社, 1995.
24. 張機, 仲景全書, 圖書出版 一中社, 서울, 1992.
25. 張奇文, 胎産病證,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26. 李炳國, 王叔和脈經, 癸丑文化社, 서울, 1985.
27.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圖書出版 一中社, 서울, 1992.
28. 傅沛藩等, 萬氏女科(萬密齋 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29. 張奇文, 婦科基礎理論,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30. 김창민 외 한글역저, 完譯 中藥大辭典, 圖書出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版 鼎談, 1998.
31. 沈金鰲, 婦科玉尺, 自由出版社, 1986.
32. 廣東·廣西·湖南·河南辭源修訂組 商務印書館編輯部, 辭源,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81.
33. 陳自明, 婦人大全良方(四庫全書本), 大星文化社, 서울, 1995.
34. 大田大學校韓醫科大學 第7回卒準委, 譯釋丹溪醫論, 大星文化社, 서울, 1993.
35. 趙勉彙·朴炫局, 古代婦産科의 醫史學的 硏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Vol9, 1996.
36. 趙勉彙·朴炫局, 明淸代 婦産科의 醫史學的 硏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Vol 10, 199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